

On Being a Great “Third Place”
Thursday Email Devotion for August 3, 2023

Aloha MPC ‘Ohana,

It’s August 3,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Email Devotion.

I heard a new term not too long ago on the radio: “third place.” According to the program I was listening to, “third place” is a term some sociologists use to talk about somewhere people go. This place is not their home – the sociologists call our homes our “first place.” And they likewise refer to our jobs or our schools as our “second place.” All of which means that a “third place” is somewhere people go to connect with others, to experience relationships, to partake of what we Christians call “fellowship.”

The sociologists have observed that people go to all kinds of different venues looking for a good “third place” experience – from cafes to libraries, parks to club meetings. And people do this, the sociologists say, because there is a basic human need inside of all of us for meaningful interaction with others. And so, “third places” are said to be healthy for individuals – and, in turn, to be healthy for communities too.

Historically, churches were often very popular “third places” where many people would gather and connect. And I personally think that that is something a church like ours, where the fellowship is already so warm, could definitely still offer to our neighbors.

And so I was interested to learn that the people who study “third places” have apparently identified seven or so key features of any outstanding “third place.” They are:

Leveler (a leveling place)

Outstanding third places put no importance on an individual's status in society. One's socioeconomic status does not matter in a third place like this, allowing for a sense of commonality among everyone. There are no prerequisites or requirements that would prevent acceptance or participation in the third place.

Conversation is Key

Positive and uplifting conversation takes place in outstanding third places, although it is not required to be the only activity. The tone of conversation is usually upbeat, good-natured, and encouraging.

Accessibility and Accommodation

Outstanding third places are open and readily accessible to all. They are also accommodating, welcoming, and hospitable.

The Regulars

Outstanding third places have a number of “regulars” whose high commitment helps give the space its tone and atmosphere. Regulars to third places also attract newcomers and are there to help someone new to the space feel welcome and accommodated.

A Low Profile

Outstanding third places are characteristically wholesome. They are never snobby or pretentious, and are accepting of all types of individuals from various different walks of life.

Joyful Mood

The tone of conversation in outstanding third places is never marked with tension or hostility. People *enjoy* being there together.

A Home Away from Home

Outstanding third places will often have the same feelings of warmth, possession, and belonging as people do in their own homes. Participants feel a piece of themselves is rooted in the space and gain spiritual regeneration by spending time there.

Now, like I said, this whole concept of “third places” came as news to me. But as I think about my own experience here at MPC, I feel like we fit the bill pretty well as a great “third place.” What’s more, on top of the aforementioned seven attributes, as a body of believers in Jesus Christ, this is also a place where God’s grace, the gospel, inspiring worship, and opportunities for spiritual growth and meaningful service are readily available too.

So, put it all together, and MPC sounds to me like a pretty great “third place,” not only for those of us who are here, but for many of our neighbors too. And recognizing that, I’m redoubling my own efforts to invite more people to “come and see” what’s going on here at MPC. And I’d humbly like to encourage you to keep doing so too. Because we *do* have a lot to offer.

Me ke aloha,

Pastor Ron

훌륭한 "제3의 장소"가 되는 것에 대해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8월 3일, 또 다른 목요일 이메일 헌신 시간입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서 "3위"라는 새로운 용어를 들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던 프로그램에 따르면, "제3의 장소"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집을 "첫 번째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업이나 학교를 우리의 "두 번째 장소"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은 "제3의 장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관계를 경험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제"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도서관, 공원, 클럽 모임에 이르기까지 좋은 "제3의 장소" 경험을 찾기 위해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장소를 찾는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는 개인에게 건강하고, 나아가 공동체에게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종종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결되는 매우 인기 있는 "제3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미 교제가 따뜻한 우리 교회와 같이 여전히 우리 이웃들에게 여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3의 장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제3의 장소"의 주요 특징을 7개 정도 식별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벨러(레벨러)****

뛰어난 3등은 사회에서 개인의 지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3의 자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

3등에 대한 수락 또는 참여를 방해하는 전제 조건이나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대화가 핵심****

유일한 활동일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대화는 뛰어난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화의 어조는 대개 낙관적이고 온화하며 격려적입니다.

****접근성 및 숙박 시설****

뛰어난 제3의 장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용적이고 환영하며 후대합니다.

****레귤러****

뛰어난 3등 장소에는 공간에 분위기와 분위기를 부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단골"이 많이 있습니다.

3등 장소의 단골 손님은 또한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고 공간에 새로 온 사람이 환영받고 수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로우 프로파일****

뛰어난 3위는 특징적으로 건전합니다.

그들은 결코 거만하거나 가식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계층의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즐거운 기분****

뛰어난 제3자의 대화 어조는 결코 긴장이나 적대감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을 _즐깁니다_.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집****

뛰어난 3등 장소는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따뜻함, 소유, 소속감을 가질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그 공간에서 자신의 일부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느끼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영적 재생을 연습합니다.

이제 제가 말했듯이 "제3의 장소"라는 개념 전체가 저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MPC에서의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훌륭한 "제3의 장소"로서 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곱 가지 속성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감동적인 예배, 영적 성장과 의미 있는 봉사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합치면 MPC는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에게도 꽤 훌륭한 "제3의 장소"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여기 MPC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와서 보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내 자신의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공할 것이 많기 때문 _입니다_.

알로하,
론 목사